



정부,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 확정

오병국 연구원

- 정부는 12월 20일에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함.
 - 전략은 크게 성장 프런티어 확충, 글로벌·역내 파트너십 강화, 국제사회 기여와 리더십, 대외 인프라 구축 등 4개 방향에 걸쳐 139개 세부과제로 구성됨.
-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경제성장 프런티어 확충을 위해 글로벌 자유무역협정(FTA)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함.
 - 한·중 FTA의 경우 국내 여론과 중국측 입장 등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, 협상이 중단된 한·일 FTA는 비관세장벽 해소와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 재개환경을 만들어가기로 함.
 - 한·중·일 FTA는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2년 5월 3국 정상회담 전까지 우리측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함.
 -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회원국과 양자간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며, 아세안과 인도 등 이미 발효된 FTA는 양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.
 - 미국과는 이행 법령을 차질없이 정비하고, 한·미 공동위원회에 대비하기로 함.
 - FTA 국내대책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대상 품목을 찾아내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유통 단계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함.
 - FTA확대를 계기로 글로벌 B2B(기업간), B2C(기업-소비자간) 오픈마켓과의 제휴지원 등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.

■ 또한,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방위로 확대하고, 다자간 무역·금융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함.

-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을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국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확대 전략을 세움.
 - 브릭스(브라질, 러시아, 인도, 중국)와 중동이 주 타겟이며, 중국과는 투자협력채널을 늘리고, 중동은 아랍에미리트 중심에서 사우디아라비아, 쿠웨이트 등지로 대상을 넓혀갈 것임.
- 국제통화기금(IMF)과 세계은행(WB) 등 주요 국제 금융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출연을 2011년 682억 원에서 2012년 825억 원으로 늘림.
 - 세계은행에는 동아태금융자문센터를 설치하고 녹색성장신탁기금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의 역할을 키우기로 함.
- 2012년 아세안+3(한중일) 재무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(한국, 캄보디아)로서 역내 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(CMIM)에 위기에방 기능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, 현행 1천 2백 억 달러인 기금규모의 증액을 추진함.
- 원전, 플랜트, 인프라, 자원개발 같은 대규모 국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림.
 -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금융지원은 2011년 15조 7천억 원에서 2012년 16조 5천억 원으로, 자원개발 지원은 1조 9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,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성 무역보험은 17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각각 증액됨.
-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간 500개의 수출 창업기업을 육성함.

(기획재정부, 12/21)